



군산장례(전문)예식장



거품없는 장례비용으로 예(禮)와 정성(情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T. 468-4119, 4444



예식실



사우나실



2층로비

동군산 장례식장



'가장 가깝고, 가장 편리한 곳에서
마지막 친절을 보내주세요'

T. 441-4444



상상을 뛰어넘어!
그 이상을 향하여!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선도국제페리(주) www.shidaoferry.com

부산 **☎** 051-761-4411 / 1100 **☎** 051-761-4411 / 1100

전주 **☎** 063-271-0666 / 063-271-0666 **☎** 063-271-0666 / 063-271-0666

광주 **☎** 031-03-2011 **☎** 031-03-2011

지역 운송사 연락처 **☎** 063-269-3491 **☎** 063-269-3491 / 1600



박승일
회장
newgunsanews@naver.com



채명룡
발행인
ml7614@naver.com



강권모
부사장
sky6113483@hanmail.net



이쥬은
편집부장
leejonyun@daum.net



최승호
취재부장
gsport11@naver.com



강해인 편집위원
godls468@naver.com



박세원 편집위원
작가
hamp38@hanmail.net



배수정 편집위원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 서양화 강의
jlmjlm710@naver.com



신성호 편집위원
지필문학/대한문학
편집발행인
한국예총 군산지회
부회장
shinez2580@hanmail.net



신재순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한국동시문학회 회원
speedal@hanmail.net



오성렬 편집위원
칼럼니스트
poi3275@naver.com



이소암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 전담교수
lsa6246@hanmail.net



이영미 편집위원
프리아트컬렉션,
(사)이음예술문화원
대표
ycm1022@hanmail.net



이준호 편집위원
작가
sting4246@hanmail.net



조경신 편집위원
군산시가족센터장
호원대학교 아동복지
학과 외래교수
vip2300@daum.net



한대산 편집위원
jbekt@naver.com



공종구 편집위원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kong@kunsan.ac.kr



한상오 편집위원
새만금환경생존연합 대표
hansango24@gmail.com



김철호 편집위원
계곡가든 꽃게장 대표
대한민국 명인·세계 명인
식품의약학 박사(조선대 대학원)
www.crabland.com



- Vol.171 | 2025.07
- | | | |
|-------|-----|------------------------|
| 회장 | 박승일 | newgunsanews@naver.com |
| 발행인 | 채명룡 | ml7614@naver.com |
| 부사장 | 강권모 | sky6113483@hanmail.net |
| 편집부장 | 이쥬은 | leejonyun@daum.net |
| 취재부장 | 최승호 | gsport11@naver.com |
| 편집위원 | 강해인 | godls468@naver.com |
| 편집위원 | 박세원 | hamp38@hanmail.net |
| 편집위원 | 신성호 | shinez2580@hanmail.net |
| 편집위원 | 오성렬 | poi3275@naver.com |
| 편집위원 | 이소암 | lsa6246@hanmail.net |
| 편집위원 | 이영미 | ycm1022@hanmail.net |
| 편집위원 | 조경신 | vip2300@daum.net |
| 편집위원 | 최영두 | cydnovl@naver.com |
| 편집위원 | 한상오 | hansango24@gmail.com |
| 편집위원 | 한대산 | jbekt@naver.com |
| 칼럼니스트 | 배수정 | jlmjlm710@naver.com |
| 칼럼니스트 | 신재순 | speedal@hanmail.net |
| 칼럼니스트 | 공종구 | kong@kunsan.ac.kr |
| 칼럼니스트 | 김철호 | www.crabland.com |
| 자문위원 | 이진우 | jay0810@hanmail.net |

고용원이 생각하는 대학

굿잡!

군장대학교

WURI 세계혁신대학 5년 연속 선정

산업적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 부문

(특수 2020 43위, 2021년 27위, 2022년 32위, 2023년 31위, 2024년 30위 선정)

고용직업교육 통합인문대학 | 교육부 고용직업교육거점 지구(HIVE 1유형) 사업 선정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2유형) 선정대학 | 교육부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2.0) 운영대학
 교육부 대학기본역량강화단 일반대형지원대학 선정 | 고용노동부 고숙련 일학습병행(IP-TECH) 운영대학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운영대학 |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운영대학



김의겸의 시대가 올까(?)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던 김의겸 전 의원이 제 6대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되었다.

군산출신으로는 제 3대 김현숙 청장에 이어 두번째이다.

반겨야 할 일이지만 새만금의 앞 날이 첩첩 산중이기에 걱정된다. 그러나 야인에서 현장으로 돌아온 김의겸의 의기(意氣)가 여전하니 잘해 내리라 믿는다.

“가슴이 벅차면서도 어깨가 무겁다”

김의겸 신임 청장의 말에서 대전환기를 맞은 새만금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김경안 청장이 물러나면서 전문적인 개발 영역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행정관료 출신들이 하마평에 올랐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김의겸을 선택했다.

흑석동 건물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결국 검찰의 불기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한 그의 강단 있는 정치 행보에 대해 이재명과 닮은 꼴이라는 소리도 나왔다.

김 청장이 넘어야 할 산도 아직 있다.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고급 술집에서 만났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뉴스 사건이다.

반면 대통령은 그를 소신있는 인물로 낙점했으리라고 짐작된다. 또한 김 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말한 ‘고향에 가서 열심히 일해보라’는 뜻도 담겨 있을 것이다.

임명에 앞선 발표에서 김의겸 신임 청장은 지역 협력과 홍보 소통, 정책 경험 등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산업단지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청장은 군산·김제·부안과의 지역 상생 협력, ‘녹

색산업벨트’ 전환과 글로벌 투자유치, 개발 현장에 대한 실행력과 정치·관료적 협상력, 지역 주민·기업과의 협력 등등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새만금 환경 오염을 완화 또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해수유통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며, 당장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유치하는 일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또 “또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해수유통,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온 국민이 사랑하는 새만금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군산·김제·부안 갑 경선에서 신영대와 맞붙어 아깝게 졌다. 산을 넘으면 강이 가로막고, 그 강을 건너면 또 거센 풍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거침없이 달려 나가되 안과 밖을 모두 아우르는 정치 행보였으면 좋겠다. ‘김의겸파’ 라느니, ‘신영대파’ 라느니 하는 말일랑 군산 앞바다에 던져 버리자.

28만 인구가 이제는 겨우 25만에서 턱걸이 하고 있다.

군산 몰락의 지표이다.

이 냉엄한 현실 앞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내 편, 네 편’ 가릴 때가 아니다.

‘나는 군산 편’이라고 크게 크게 품어주었으면 좋겠다. 화합 메시지는 새만금의 앞 날을 설계하는 군산출신 청장의 몫이다.



글 | 박승일
본지 회장

newgunsanews@naver.com



대한민국 성형외과 '레전드'

‘군산의료원’에 초빙된 오석준 박사

글 | 채명룡
ml7614@naver.com

대한민국 성형외과의 레전드로 불리는 오석준 박사.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상장곶마을이 고향인 그가 60여 년 만에 귀향하여 ‘군산의료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고희를 넘긴 시니어 의사이지만 ‘레전드’로 꼽히는 그였기에, 시골 병원인 군산의료원에 초빙되자 성형외과계의 화제가 되었다.

연세대를 나와 탄탄한 실력을 쌓았으며, 대한민국 성형외과의 토대를 만들어왔던 그의 귀향과 진료는 그 자체로 뉴스였다.

이야깃거리만이 아니라, 실제 그의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지역의 환자들에겐 낭보 중의 낭보다.

그는 대한민국 성형외과학계에서 수지 절단 환자들의 미세 접합술, 화상 환자 재건술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군산의료원 ‘화상 센터’ 건립을 일생의 마지막 목표로 삼고 있는 오석준 박사.

수부(손가락) 재건과 머리·안면 기형, 화상으로 인한 피부 재건, 그리고 미용 수술 등 어려운 환자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성형외과

Plastic Surgery





일반외과 전공의과정 수료기념



성형외과의국



대구통합병원 정원에서 동료들

나의 닉네임은 '28번'

성형외과가 독립 진료 분야로 분리되기 직전, 청년 오석준은 일반외과와 성형외과 수련을 연이어 받았다.

1974년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전문의 번호-1162)을 취득한 뒤 다시 2년 동안 성형외과 수련을 했다.

남들은 3년이면 마치는 수련을 그는 5년 동안이나 걸린 셈이다. 성형외과가 독립되고 전문의 시험이 열린 첫해에 모두 21명, 그리고 다음 해에 열린 2회 시험에 그를 포함한 7명이 응시해 모두 합격했다.

나이가 막내였던 그는 7명 중 '꼴찌 번호'를 받았다.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28번. 1976년의 일이다.

오늘 그는 50여 년 전 받았던 성형외과 전문의 '28번'의 명예를 걸고 고향 군산에서 나머지 인생을 봉사하려고 한다.

고되고 힘들다는 두 차례의 수련 생활을 마친 그는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면서 미세 수술, 화상 재건 치료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다.

“고향 사람들은 모두 가족 같아요. 인구가 25만 명 정도인데, 한 다리만 건너면 ‘누구네 식구 누구라느니’ 등등 다 알 수 있잖아요? 편안하고 좋죠. 고향 분들이 누리지 못했던 성형외과 진료 혜택을 제가 앞장서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외상 후유증 환자들 돕는 길 선택

의대 3학년 2학기 목요일 오후에는 진료 실습이 있었다. 학생 오석준은 외과 교수님 7~8분 중 성형외과 교수님을 따랐다. 1년 동안 실습을 하면서 성형외과에 눈을 뜨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예약된 환자의 쌍꺼풀 수술 한 번에 50~60만 원을 받으시더라고요. 당시 위 절제 수술 비용과 비슷했어요. ‘아, 이 분야를 잘하면 환자도 보면서 돈도 벌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그런 생각과 함께, 청년 오석준의 눈에 어렵고 힘든 성형외과 환자들이 들어왔다. 언청이 수술은 물론, 화상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도 있었다.



Mulliken 교수와 수술실에서 찍은 사진



1.수술 전 2.절개선 디자인 3.종양제거후 봉합 직후



4.종양의 절개 단면 모습 5.수술 2개월 후 모습 6.수술 4개월 후 모습



Evan's lecture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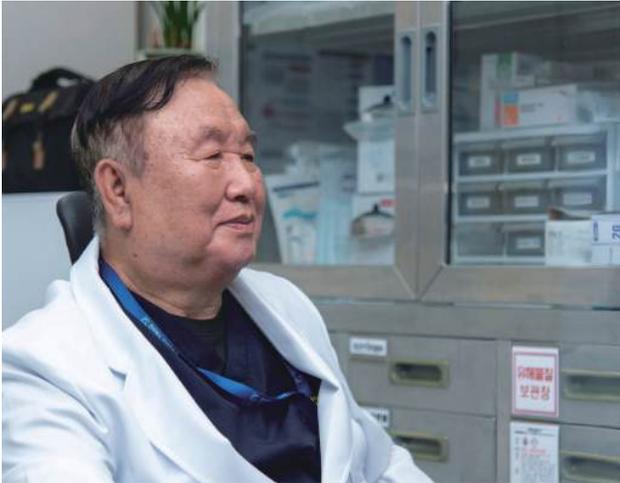


발등의 화상 후 궤양성 구축반흔 과 족배부 유리조직이식술 10년 후 결과

“일반외과의 경우 응급환자가 대부분이기에 유명을 달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책임과 의무도 있기에 표정 관리를 하지 만, 내가 치료하던 환자가 눈을 감는 걸 보면서 무척 심한 갈등 을 하게 됩니다. 의사로서의 숙명이지만, 힘든 과정이죠.”
 일반외과 수련을 하면서 긴급한 환자들을 대하는 건 대부분 수련의 몫이었다.
 의사로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을 보며 갈등도 많았다.
 “성형외과 진료와 수술에 참여하고 공부하면서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했죠. 어렵고 힘든 환자들이었지만, 현장에서 세상을 달 리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마음이 기우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 요.”
 초를 다루는 긴급 환자들이 밀려드는 일반외과와는 달리, 성형 외과의 진료와 수술은 예약에 의해 진행되었다.
 환자가 밀리지는 않았지만 난이도는 매우 높았다.
 성형 치료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아가는 환자들을 보며 수련의 로서 나름의 보람을 느꼈다. 그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 했다.

재건 치료는 나의 인생, 나의 길

일반외과와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모두 마친 오석준 박사. 그 또한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군 생활을 마친 뒤 시골에서 서울로 복귀했지만,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립의료원에 들어갔다.
 “뜻하는 대로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내 실력이 부족한가.. 고민했죠. 이때부터 ‘내 실력을 키워야겠다’고 독하게 마음먹었 습니다.”
 미세 수술을 연구하고 개발해 나갔다. 힘든 과정이었다.
 처음 성형외과를 하겠다고 결심했던 때처럼, 돈을 버는 분야도 아니었다.
 “대부분 낮에는 외래 진료를 보고, 밤에 수술을 했습니다. 손가 락 한 마디 접합 수술에 5~6시간, 손목 절단 같은 경우는 20시 간 이상 걸리기도 했어요. 어려웠죠.”
 성형외과 분야이긴 하지만 그는 미세 수술을 독립적인 진료 영 역으로 개척해 나갔다.



이후 강동성심병원에서는 두경부암 분야를 개척했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수를 통해 안면 기형 분야를 공부한 뒤, 자신만의 방식으로 국내 환자들에게 적용했다.

이런 노력은 국내 성형외과학계가 인정했다. 그는 안면기형, 골 성형술 등 대한민국 재건 치료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로 기록되었다. “새로운 의학 분야를 개척해 나간다는 보람도 있었지만, 처음 성형외과를 지원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전개된 셈이 아니어라니한 일이지.”

군산의료원 화상센터를 꿈꾸면서

의사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던 그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군산의료원에 ‘화상 전문 센터’를 만드는 것을 구상했다.

그는 이미 한강성심병원 원장으로 6년간 재직하며, 병원 내 한림 화상센터를 세계적인 화상 전문 센터로 성장시킨 바 있다.

당시 화상 치료 경험과 성과로 인해 그는 오늘날 화상 재건 성형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저는 약간 저돌적이라는 말을 들어요.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치료제나 드레싱제를 값싸게 사용해야 한다고 심평원을 설득했고, 결국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했어요.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죠.”

이처럼 화상 환자들을 무료 진료하고 지원해 온 업적으로, 그는 2004년 보건의 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화상 환자들에게 오석준 박사의 진료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제공한다.

그는 수술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치료를 통해 정상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왔다.

그 때문에 치료받은 환자들의 만족감과 향후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식할 피부를 허벅지 같은 눈에 띄는 부위에서 떼지 않고, 머리 두피에서 떼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식된 피부도 잘 살아야 하지만, 이식한 자리에 흉터가 남으면 환자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획기적인 방법이었죠.”

군산의료원에 화상센터가 들어선다면, 군산은 물론 충남 등 서해 중부권 환자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이다.

“화상 전문병원이 전주의 A병원, 대전의 B병원뿐인데, 군산의료원이 공공적 기능을 보완해 줄 센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힘 닿는 데까지 군산 출신 의사로서 봉사하려 한다는 그의 말에서 인정 많은 군산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고향, 영원한 마음의 안식

일생을 재건 성형 의학에 바쳐온 그였다. 화상을 입은 환자를 돕고, 욕창 후유증을 치료하며, 없는 귀를 만들어주는 일 등 타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를 도맡아 진료했다. 오늘날 환자들과 유쾌하게 마주하는 그의 모습엔, 갈라지고, 터지고, 절단되고, 사라진 신체 부위를 복원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던 수많은 시간이 녹아 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가 고향 군산의 공공의료기관 ‘군산의료원’으로 초빙되었다. 그의 인생에서 고향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오랜만에 고향에 와보니 다 친척 같고, 가족 같아요. 노인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몇 살이세요? 나하고 비슷하네’ 하면서 편하게 해

주거든요. 병원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인데, 집안 친척이 진료를 보는 것처럼 제가 편하게 해주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이 모두 형제 같고 친척 같아 마음이 가볍다고 했다. 좀 더 일찍 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전주나 익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성형외과 질환들은 제가 다 치료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간단한 건 치료하고, 심각한 건 이송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이 좋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레전드’가 진료를 보고 있는 군산의료원 성형외과. 그 잔잔한 파문은 이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누리게 될 것이다.

오석준

군산의료원 성형외과 과장

오석준 과장 블로그: <https://blog.naver.com/sjoh46>

프로필(약력)

현 직위

- 군산의료원 성형외과 과장

학력 및 자격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의학박사
- 미국 하버드의대 소아병원 연수
- 일반외과 전문의
- 성형외과 전문의
- 수부외과 전임의
- 군의관 복무 (육군 소령)



오석준 과장

주요 경력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종신 명예교수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주임교수 / 석좌교수
- 국립의료원 성형외과 전문직
- 한강성심병원 병원장
- 한림대학교의료원 부의료원장
- 강동성심병원-강원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 베스티안서울병원 화상재건성형센터 소장
- 레전드성형외과 대표원장
- 베이직성형외과 원장
- 국립수도통합병원 성형외과 자문의



학회 활동

-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장·자문위원
- 대한수부외과학회 회장·창립회원
-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 회장
- 대한두경부중양학회 회장
- 국제성형재건미용외과학회연합 회원
- 국제수부외과학회연합 회원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수상 경력

- 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상 (1975, 1985)
- 한림대 성심동백장 (1987)
-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2004)
-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 (2011)



저서 및 연구 활동

- 전공 교과서·전문서적 10여 권 공저
- 국내 논문 193편
- 국제논문(SCI/SCIE) 53편



전화예약방법

예약진료는 주간 외래진료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예약접수신청 후 담당자가 완료처리시 실제 접수됩니다.

예약접수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일전 2회 SMS 문자발송)

모든 진료는 예약일 기준 최소 3일전에 신청하셔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 일요일은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전화예약 : (063)472-5487 (평일 : 08:30 ~ 17:00 / 토요일,일요일 전화예약 불가)

예약변경 및 취소

예약일자 변경 또는 취소시에는 사전에 해당 예약접수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예약담당자 : 063-472-5487 (평일 : 08:30 ~ 17:00 / 토요일,일요일 전화예약 불가)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063-472-5000



재즈밴드G.S.H 콰르텟 공연 현장

왠지, 오늘 밤은 촉촉해~~~

글 | 채명룡
ml7614@naver.com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니, 마음이 기우는 방향으로 슬며시 손을 내미는 것 같은.....
인연처럼, 아쉬움처럼
이렇게 잔잔한 파문을 던져 주는 메시지가 또 있을까?

콰르텟 멤버, '구신환, 정규식, 이진, 이일관'

재즈밴드 G.S.H 콰르텟이 지난 7월 12일(토) 저녁 7시, 군산 뜰 Cafe & Gallery에서 가진 두 번째 콘서트는 변화와 변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연주곡마다 분위기가 달랐으며, 시간이 갈수록 여운은 길고 짙어졌다.
화장을 지웠다 다시 색조 화장을 하고 나오는 여성미를 보여주기도 했으며, 천둥이 치고 바람에 울부짖는 남성적 열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여리여리 우물쭈물하다가, 우르르광광 천둥을 치듯 하다가, 지친 듯 흐느끼는 듯 '간당간당'하다가, 상큼 발랄하다가.....



팔색조를 이렇게 말했던가?)
섹소폰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젊은 영아' 구신환 씨의 명품 연주.
부드러우면서도 비바람을 몰고 오는 듯한 드러머 정규식.
베이스스트로 더 유명한 이진 씨의 기타 소리.
여기에 순수한 열정이 빛나는 베이스 이일권 씨 등 4명의 하모니가 짙은 여름밤을 달구었다.
연주 분위기가 흩어지지 않게 MC 한은희 씨가 조용조용 공연 진행을 이어갔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



원로 연주자 구신환씨의 흥겨운 익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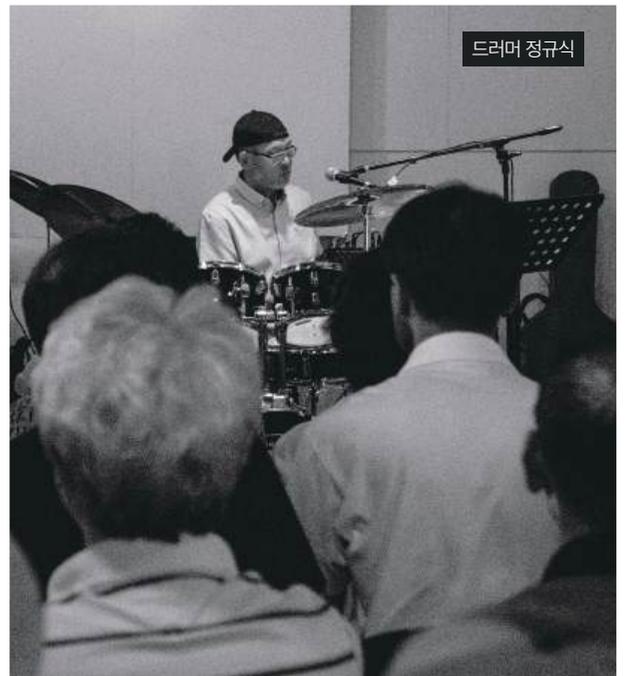
기타리스트 이진



이일권 베이스 연주



색소폰 구신환 연주자



드러머 정규식

세대를 넘나든 열정의 공연

재즈 연주는 음향과 조명이 필수.

그러나 공연장은 카페로 운영하기에 폴 세트로 필요한 음향과 조명을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자들의 기량과 열정은 완비된 음향과 조명을 뛰어넘었다.

구신환 씨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의 열정은 청춘의 것과 같다.”라고 하는 듯한 색소폰 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파고 들었다.

리드미컬하게 행간을 넘나드는 이 진 씨의 기타 연주와, 든든하게 뒤를 채워주는 베이스 이일권 씨의 연주 또한 놀라웠다.

살짝 어수선할 때쯤엔 있는 듯 없는 듯하다가, 살갓에 전율이 들게 만들어주는 리듬으로 관객들의 혼을 빼놓았던 정규식 드러머의 연주...

특별 출연한 박화실 트럼페터가 들려준 곡들도 인기 만점이었다.

공연장에서 선보인 곡들은 Quizás, Quizás, Quizás’, ‘Summertime’, ‘Sunset’, ‘Watermelon Man’ 등이었다.

또 보컬로 나온 나연 씨는 ‘Fly Me to the Moon’, ‘골목길’, ‘Danny Boy’, ‘Mo’ Better Blues’로 맑으면서도 여운이 남는 음악 세계를 선보였다.

그녀의 출연은 살짝 올드한 분위기에 청량제 역할을 해주었다.





작은 공연, 큰 울림

줄잡아 약 300명의 관객들이 몰려든 이 작은 공연은 그 자체로 이야기가 되었다.

군산의 대중음악, 취미로 잡은 악기와 음악의 세계를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보여준 게 아니냐는 평판이다.

과르텟은 이번의 공연처럼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진심을 다하는 무대’를 보여주기로 했다.

4명의 멤버들과 특별 출연한 두 분 연주자들에게 행운을 비는 박수 소리도 터져 나왔다.

관객들은 관객들대로, 연주자들은 연주자들대로 스스로 만족한 무대로 기록될 것이다.

밴드명 ‘G.S.H’는 리더 구신환의 이름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Groovy & Soft Harmony’의 약자다.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을 다하는 무대여서, 그들의 무대가 벌써 그림자다.



군산계곡가든 김철호 대표

'꽃게장의 달인' '월드마스터' 선정
꽃게장 축제-군산맛의 세계화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야미도 섬 늠에서 세계 명인으로!

군산계곡가든 김철호 대표는 '꽃게장의 달인'이다. 명인이고 명장이다. 가히 '꽃게장 인생'이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군산 맛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맛있는 명품 꽃게장을 만들어왔다. 30년을 넘어오며 한 길을 걸어온 군산꽃게장의 개척자이다.



2024 월드마스터

“군산 앞바다 섬마을(아미도)에서 태어나 종갓집 며느리였던 어머니의 손맛을 잊지 않고 더 맛있는 계장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연구하고 실험했다. 우리 몸에 이로운 16가지 다양한 한약재를 이용한 간장계장 제조 방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후 양념과 계장 제조방법 특허를 출원해 ‘김철호 꽃계장’을 세상에 내놓았다.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만든 결과이자 김 대표의 자부심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24 월드마스터위원회 문화의날-인터내셔널 컬처 데이2024’에서 ‘월드마스터(세계명인)’로 선정됐다.

김철호 대표의 꽃계장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은 셈이다.

“오로지 맛있는 최고의 꽃계장을 만들고, 그 맛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세계 명인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월드마스터(세계명인)’란 자신의 분야를 올곧게 일구어 온 전 세계 문화예술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양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현재 총 80개국 389명이 ‘월드마스터’로서 사단법인 세계명인회의 회원으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옛날 같진 않지만(웃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인들로부터 사랑 받고 인정받는 맛있는 간장계장을 만들겠다.”



2024 월드마스터 시상식



2024 월드마스터 시상식

군산계곡가든에서 '내고향시푸드'로

1990년 문을 연 계곡가든은 맛있는 꽃게 하나로 시민들과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지역을 대표하는 장수 음식점 중 하나다. “35년이다. 긴 세월 동안 20여 평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3,300여 평에 달하는 대규모 식당으로 거듭났죠. 4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고 365일 쉬지 않아요. 군산꽃게장을 맛보기 위해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온 손님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어요. 저만의 고집이자 제가 음식을 만드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많이 힘들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큼니다. 자랑스럽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음식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호텔외식 경영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의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초당대, 호원대, 우석대 등지에서 셰프 양성에 힘을 쏟았다. 교육 현장에서 지도 경험은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내게 큰 의미가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건강 문제 등 수많은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최고의 꽃게장 만들기엔 많은 도움과 자극이 된 것 같다. 모든 과정이 결국 맛있는 꽃게장 만들기엔 수렴된 것 같다. 성과와 보람이 컸다.”

김 대표는 지난 1997년 ‘내고향 꽃게장’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양산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내고향시푸드’로 법인명을 변경,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김 대표와 함께 가업을 꾸려온 든든한 딸(김보미 부사장)로 이어온 자랑스러운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백년가게’이다.

최고의 맛, 권위 인정

2019년부터 최고의 맛집 소개서인 ‘블루리본서베이’에 매년 등재될 정도로 그의 꽃게장은 높은 인지도와 함께 맛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2007년 대한명인협회로부터 ‘꽃게장 명인’으로 선정되고 이어 해양수산부로부터 ‘신지식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대통령 산업포장’, ‘전라북도 자랑스런 기업인상’, ‘한류 최고 전문가 청룡상’ 등 최고의 맛과 권위를 인정받았다. 과거 미국 뉴욕 한식요리경연대회에서 ‘황금무궁화외식산업대상’과 ‘국민산업포장’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HACCP, BUY 전복상품, 전통식품 등 꽃게장 관련 인증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김 대표의 부단한 노력에 대한 결실들이다. 군산지역 특산품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군산팍 협동조합 이사장과 군산꽃게장협회장까지, 군산꽃게장 전도사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창업전도사, 꽃게장 축제, 세계화...

“국내 최초로 간장게장을 홈쇼핑에 런칭하여 간장게장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리고 재작년에 자영업자들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명인 김철호의 멀리 내다보니 창업 이야기>을 썼다. 현장에서 쌓아온 창업 생태계의 현실적 조언을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현재 ‘월간 매거진 군산 새만금’에 ‘명인 김철호의 고사성어로 바라본 맛있는 창업’이라는 컬럼을 기고하고 있다. 필자도 매달 재밌게 읽고 있다.

김 대표는 “군산을 명실상부한 꽃게장 메카로 만들기 위해 지금도 고민 중이다. 군산꽃게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꽃게 요리 경연대회 등 꽃게 관련 축제를 만들고 싶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군산꽃게장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새로운 목표와 의지를 다졌다. 김 대표의 꽃게장 사랑과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동안 군산꽃게장을 사랑하고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노력으로 군산 꽃게의 맛을 전국을 넘어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산계곡가든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616
 영업시간 // 매일 11:00~20:30
 문의 // 063-453-0608

-2025 Summer- 이정자 작가의 유화전

글 | 오성렬
poi3275@naver.com

비중 있는 작가들의 전시가 연중 열리고 있는 대형 갤러리카페 '공감선유'에 들어서면 서양화가 이정자(李靜子) 작가의 멋진 유화들을 만날 수 있다. 낯선 도시 군산에 우연한 일로 방문한 것이 인연이 되어 군산 정착을 결심했다는 8순의 그녀는 어릴 적 살던 서울의 분위기와 거리의 모습, 그리고 미국에서 20여년 거주했던 코드레인 시골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군산에 정감이 느껴졌다는데 특히 산과 바다, 호수에 둘러싸인 청결한 자연환경이며 입맛을 돋우는 음식에 매료된 것도 큰 이유였다.



자택 작업실에서

지난 2022년 군산에 내려온 이 작가는 구입한 아파트의 내장 공사를 하는 동안 동국사 부근 게스트하우스에서 약 6개월간 임시 거주하다가 아파트 공사가 끝난 뒤 미국에 들어가 모든 가재도구를 다 정리하여 화물로 부치고 그해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낯선 도시 군산 주민으로서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이 작가가 군산 정착 후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군산의 미술동아리는 '짬전'이었다. 2021년도 발족한 짬전은 군산대 미대 전공자 중심으로(대표 노승범 작가) 출발한 뒤 이후 비전공자들에게까지 외연을 확장, 현재는 약 40여명이 활동하면서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갖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단체를 알게 되어 회원들과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올 10월 군산우체국 앞 리오갤러리에서의 전시도 예정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일이 좋았다는 이 작가는 성인이 되어 서울대에 진학, 전공을 선택할 때에도 미술 이외에는 생각지 않았다. 스스로의 그림에 대해 딱히 어떤 화풍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그녀는 마티스를 비롯한 표현주의 작가들과 Willem de Kooning, Robert Motherwell 등의 서정적 추상 작품을 좋아한다며 자신의 작업에 관한 소회를 이렇게 피력한다. “그림 그리는 친구들 사이에 쓰는 용어 중 ‘눈때를 묻힌다’는 표현이 있다. 붓과 나이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시간이 아닌, 캔버스 앞에 앉아 하염없이 그림을 들여다보며 명상하고 고민하고 반성의 시간도 갖는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순수 우리말이어서 친근감도 있다. 어떤 때는 눈때 묻히는 시간이 길어 작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기도 한다. 다작(多作)을 하건 못하건 이 눈때 묻히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잠시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짓던 이 작가는 “이런저런 핑계로 일상생활에서 그림 작업을 멈출 때도 있었지만 그만 끝내겠다든가 언제까지만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둘째 아이를 낳고 두 달만에 대학원 진학을 했다. 대학 졸업 10년 만에 다시 학생이 된 것이다. 학위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만 그림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소속해야만 할 것 같아서였다. 그 생각은 옳았던 것 같고 졸업 후엔 첫 번째 개인전도 열 수 있었다”고 심경을 술회하기도 한다.



자신의 작품 옆에서



서울대 미대 동창들과 함께한 이 작가(중앙)

이 작가는 그 후 오랜 외국 생활에서 틈틈이 그린 그림들이 모아졌다. 큰 그림들은 운반이 어려워 둘둘 말아 보관했는데 곰팡이가 생겨 캔버스 천이 부식된 탓에 안타깝게도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었고 도둑맞거나 잃어버린 작품도 있다. 61년도 입학 동기들이 모두 그림에 열심인 편이어서 동창전이 발족되었으며 그 전시회는 지난 25년 동안 한해도 빠짐 없이 계속, 근 65년 동안 동창들과의 교류도 진행형이다.



공감선유 전경



공감선유 산책로



공감선유 입구에서(오른쪽부터, 이정자작가,공감선유 추경란 대표, 환경미술 김덕신 작가)

이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갤러리카페 공감선유는 옥구읍 수산리 현위치에 지난 2019년 5월 오픈, 7년 차를 맞고 있는데 평지와 야산이 결합된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활용, 약 10여년에 걸쳐 조성한 대형 복합 문화공간이다. 자연과 도심의 매력이 동시에 느껴지도록 중앙에 위치한 산을 중심으로 3개 동의 미술관, 음악관, 라운지 등 현대적 콘크리트 건물 5개동 외에 옛 초가 한옥의 형태를 복원하는 등 현대와 예스러움이 앙상불을 이뤄 전북의 대표적 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따라서 공감선유에서는 오픈 7년에 이르는 현재까지 우수한 작가들의 다양한 전시가 연중 열리고 있으며 향후 2~3년 후까지

예약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이정자 작가의 전시가 곧바로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만큼 이 작가의 뛰어난 작품성을 주목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필자가 이 작가의 전시관을 찾았던 날도 많은 방문객들이 이 작가의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으며 작품 가격을 물어보는 등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학생 때 가르침을 주셨던 이미 고인이 되신 유경채, 문학진 교수님을 떠올릴 때가 많다는 이 작가는 장수 시대라고는 하지만 침대나 휠체어에 누워 살아야 하는 노후를 장수 인생이라 할 수는 없다며 몸을 움직여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가 정확한

전시 작품



전시 작품



전시 작품

수명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들어감을 초조해 하기 보다 부단한 그림 작업으로 바쁜 일상으로 시간을 잊고 지내는 것이 목표라 말하기도 한다.

짬전 회원으로서 평소 이 작가와 잦은 만남을 갖고 있는 환경 미술 김덕신 작가는 “고령에 아무런 연구도 없는 타지에 정착 한다는 게 누구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이 작가님께서 기꺼이 우리 군산을 택하여 주신 것에 감동을 받았다”며 언제 보아도 항상 조용하시고 겸손한 성품에 모범

적 생활 모습은 우리 후배 미술인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말로 이 작가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낸다.

작가 프로필

- 1943년생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
- 성신사대 대학원 졸
-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 출품
- 공감선유 개인전 2025.7.1.~9.30



'일자리 지원 든든한 도우미'

군산시 일자리지원센터
영화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새 동지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일자리가 미래다. 일자리지원센터'로 오세요!

"기업이 필요한 인력과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구직자 사이에 작지만 안전하고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군산시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 송자현 팀장이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핵심적으로 말한다.



근무중인 직원들

일 자리를 찾는 군산시민 모두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가 올 5월 2일부터 영화동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동지를 틀었다.

군산시가 기존 '일자리정보센터'를 '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합 운영해 시민들과 구직자들에게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산시는 그동안 일자리지원 업무를 시청 열린민원관과 청년들 2개소에서 분산 운영했다.

일자리정보센터는 2024년 한 해 동안 구인·구직 상담 555건,

취업 알선 1,027건, 취업 실적 183건 등 군산시 관내 기업체와 시민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일자리 연계 업무를 수행해왔다.

송자현 팀장은 “다양한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박람회’ 등 채용 행사를 추진한다. 1:1 전문 취업상담과 알선 그리고 구직신청도 도와드리고 있다. 저를 포함해 5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 사업'

센터 협력사업인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 사업'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외 군산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를 지원 하고 고용 장려금(취업지원 촉진금)을 지원한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의 고용서비스 1회 이상 참여와 사업 지원 대상 기업 취업자에게 1차 20만 원, 2개월 이상 근속자에게 2차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령 및 직무 제한이 없고 4대보험 가입, 근로조건(정규직, 주4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등 지원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구직자들이 찾아오며 지원을 받고 있다.” 고 설명한다.

군산 산단 간 일자리 격차 해소와 일자리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

지원 사업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 사업'

센터 협력사업의 또 다른 한축인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 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 및 구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새만금 산단 일대 고용 관련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누리집 및 고용지원협의체 운

영이 주요 업무이다.

구직자 발굴, 취업연계, 인력수급현황 조사,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등 고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새만금 산단 내 기업유치의 가속화, 안정화를 예상하면 관 내 일자리 사업의 핵심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가 많아요.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앞으로 더욱더 세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센터 차원의 노력을 다 할 거예요.”라며 “상담과 지원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연락해오거나 찾아오시면 너무나 반갑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본인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뭔가 목표를 성취했다는 자신감도 보이고요.”

송 팀장과 직원들이 사례를 기억하며 덩달아 좋아하고 표정이 밝아진다.

“9월 중에 기업과 구직자가 만나는 ‘매칭데이’를 계획하고 있어요. 과거 대규모의 기업 설명회나 취업박람회가 아닌 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규모는 작지만 알차고 성과가 하나하나 쌓이길 바랍니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의 문의와 상담요청이 꽤 많아요 그 분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인구 유입이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만든 징검다리가 성공하는 구직자와 기업들을 위한 크고 튼튼한 동백대교처럼 되길 희망합니다.”

송자현 팀장과 직원들은 “영화동 현 센터로 이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분이 센터를 방문하실 때 더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센터 근처까지 와서도 찾지 못해 우리 직원들이 전 화기를 들고 통화하며 모시러 나갈 때도 많아요.”라고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날씨가 매우 더운 날엔 더 힘들어하시고... 빨리 홍보가 잘 돼 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센터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매거진군산 취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매거진군산.” 일자리가 미래다!

군산시 일자리지원센터

군산시 구영7길 129
 (영화동, 군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문의 // 063-453-0608



INTERVIEW - 신민경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공간

군산 드볼레 발레학원
그 시작과 철학

글 | 이영미
사단법인 이음예술문화원 대표
ycm1022@hanmail.net

군산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드볼레 발레학원. 이곳은 단순히 발레를 배우는 학원이 아니다. 예술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성장 공간'이다. 원장이자 지도자인 그녀는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하며 쌓아온 교육 철학과 발레에 대한 진심을 이 공간 안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처음 발레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늘 마음에 품은 것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단지 테크닉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예술을 통해 자존감을 키우고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녀가 자신의 교육철학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던 끝에, 직접 학원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드볼레 발레학원'이다. 이름에도 그 철학이 담겨 있다. '드볼레(Devolee)'는 프랑스어 'voler(날다)'에서 착안해 지은 말이다. 'de'는 방향성을 더해주는 접두어로, '어디론가 힘차게 날아간다'는 의미를 담는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두려움 없이 자기 길로 날아오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에요. 저는 지금도 '작은 날갯짓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발레는 저의 길이자 삶 그 자체예요”

원장에게 발레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인생의 일부였다. 감정이 흔들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언제나 발레가 그녀를 붙잡아줬다고 말한다.

“발레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질서와 절제를 가르쳐주는 깊은 예술이에요. 저 자신을 다잡고 돌아보는 통로이기도 했어요.”

그 시작은 아홉 살 때였다. 언니를 따라 무용 학원에 갔다가 우연히 본 발레 수업. 그 자리에서 단번에 매료됐다.

처음엔 단순히 동작이 예뻐 보여 따라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과 음악의 조화, 그리고 무대 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희열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발레는 그녀를 단련시키고 치유하며 지금의 길로 이끌었다.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그때의 설렘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군산에서의 시작, 예술 교육을 향한 낮은 시선과 따뜻한 응답

드블레 발레학원을 처음 군산에 열었을 때, 그녀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예술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이었다.

“군산은 문화적으로 풍부한 도시지만, 발레처럼 서양 무용 장르에 대한 접근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발레



를 꾸준히 배울 수 있을까, 부모님들이 이 교육의 가치를 이해해줄까... 그런 고민이 컸죠.”



하지만 직접 문을 열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사랑했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바라는 부모들의 진심에 감동했다. “물론 시작은 어려웠지만, 무대 위에서 아이들이 자신 있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가능성을 믿는 용기’를 심어주고 싶어요”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며 수업을 이어온 시간. 그중에서도 원장의 기억에 오래 남은 제자가 있다. 처음 학원에 왔을 때는 체형도 발레에 적합하지 않았고, 자신감도 부족했던 아이였다. 동작 하나를 익히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무대에서는 걸 무척 두려워했다.

“그 아이가 매주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조금씩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할 수 있을까?’에서 ‘해보고 싶다’, 그리고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건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무대에서 솔로 춤을 마쳤을 때, 원장은 객석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도전한 아이의 내면이 빛난 시간이었다. “저

는 아이들에게 실력보다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용기’를 심어주고 싶어요.”



드블레만의 교육 철학: ‘노력의 아름다움’과 ‘자기 존중’

발레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땀과 인내, 실패가 쌓여 있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발레를 통해 자연스럽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삶의 진리를 배운다.

“자신이 흘린 땀만큼 성장하고, 거기서 자부심도 생겨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인생 전체를 이끄는 힘이 된다고 믿어요.”

발레는 곧 ‘자기와 대화하는 예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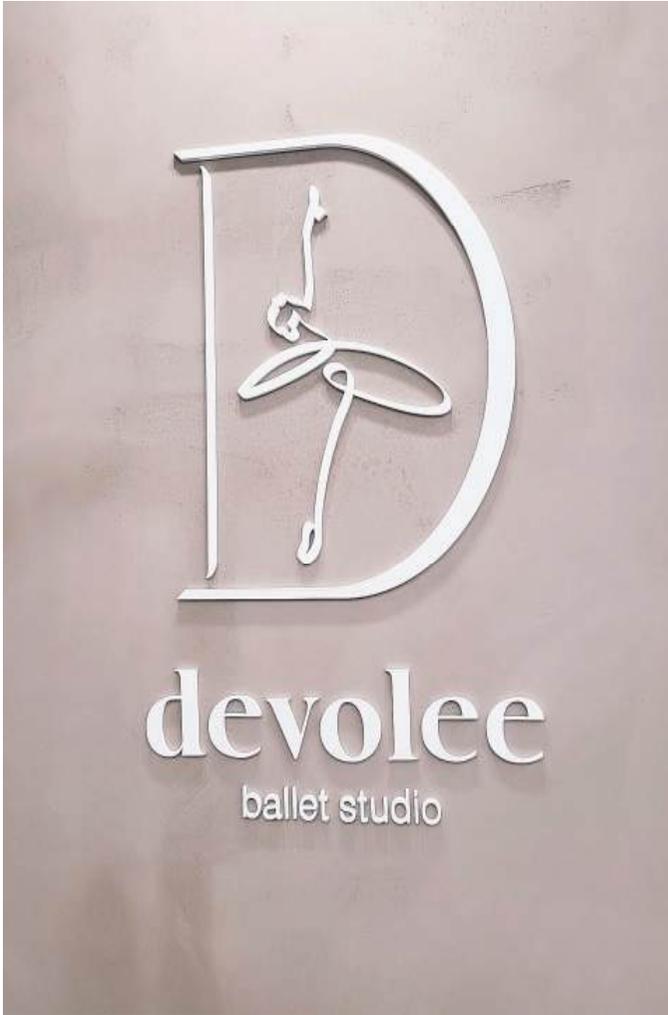
몸의 감각을 느끼고, 감정을 해석하며 표현하는 이 과정은 단지 무용기술을 넘어서 ‘삶을 성찰하는 시간’이 된다.

요즘 아이들은 감각이 예민하고 자기표현이 탁월하다.

예전에는 선생님의 지도를 그대로 따르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의 아이들은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나는 이렇게 느껴요’라고 말한다.

“그만큼 지도자도 더 높은 감수성과 유연함이 필요해요. 어떤 아이는 감정이 먼저고, 어떤 아이는 이론으로 설명해줘야 동작이 와닿거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드블레의 수업은 획일적인 지도가 아닌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드볼레는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라는 철학 아래 수업을 설계한다.

수업 시작 전에는 간단한 대화를 통해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커리큘럼은 그날그날 조정된다.

즉흥 동작 수업, 감정을 해석하는 무용극 워크숍 등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적 표현력을 끌어낸다.

“아이들이 스스로 표현하고, 친구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공간이 참 따뜻하다고 느껴요.”

군산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다. 이곳에서 예술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교육 활동을 넘어, 도시의 정서와 아이들의 배경을 이해하며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일'이다.

“예술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매개예요. 저는 발레를 통해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과도 깊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드볼레는 단순한 학원이 아닌,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예술

커뮤니티로 성장하길 꿈꾼다. 정기 공연, 워크숍, 부모와 함께하는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예술을 나누고 싶다는 포부도 있다.

“누구나 문을 열고 들어와 예술과 교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 ‘예술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발레를 시작하려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이런 말을 전한다.

“발레는 섬세하고 깊이 있는 예술이에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이들의 균형감각, 집중력, 인내심 등 삶에 필요한 요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능보다 ‘계속 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드볼레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녀의 신념처럼, 한 아이의 작은 날갯짓이 세상을 향한 큰 비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신선의 고향 선유도, 주민들의 참여로 새롭게 열어가다.

- ‘송나라 사신처럼 그대, 선유도 오셨네’-

글 | 박세원
hamp38@hanmail.net

파란 하늘 아래 청정 바닷길이 열린다. 파도가 하얀 거품 일으키며 부서진다. 어제의 시간과 다른 격랑의 세월은 담은 파도가 몰려 온다. 석양에 물들어 가는 섬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신시도, 무녀도 방축도, 명도, 관리도 등의 섬들이 신비하게도 동그런 원을 그리며 선유도를 감싸 안고 있었다.

선유낙조(仙遊落照), 석양에 노을이 지는 서해 바다 모습은 장엄한 선유도의 풍경이다. 최치원의 설화가 있고, 이순신 장군이 12일 간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 곳, 고군산군도. 섬들이 웅기종기 무리지어 있는 풍경은 한 폭의 동양화 같았다. 어느 섬도 우뚝 솟아 있거나 혼자서 튀겨 나오지 않고 손을 잡고 어우러져 있었다.

송나라 사신 서경(徐兢)이 본 고군산

서경은 송나라 때 문신으로 사신단에 포함되어 고려를 방문하였다. 그는 사신단의 출발부터 귀국까지의 과정을 기행문 형식으로 기록하였는데 이 책이 「선화봉사고려도경」이다. 고려도경에 의하면 사신단은 관선 2척과 민간인의 통산선박 6척에 승선한 사절단으로 규모는 200여 명이었다. 이들은 5월 16일 명주를 출발하여 6월 6일 군산도(선유도)에 도착한 전경은 「선화봉사고려도경」해도 편에 등장한다.

“6일 정해에 중국 사신이 선유도에 도착하니 6척의 배가 와서 맞아주었는데 배에는 무장병이 타고 징을 치고 호각을 불며 호위를 했다. 병사 100여 명이 깃발을 들고 해안에 정렬하였고 군선 6척이 수행하였으며, 김부식(『삼국사기』저자)이 사신을 영접했다. 또한 ”군산정(群山亭)이라는 정자는 두 봉우리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 두 봉우리는 나란히 우뚝 서있어 절벽을 이루고 수백길이나 치솟아 있다“고 적어 망주봉 기슭에 ‘군산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유도에서 바라본 선유대교

이처럼 서금이 바라본 선유도는 현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군산도가 고려시대 해상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유도에는 거친 파도를 피하여 순풍을 기다릴 수 있는 천혜의 항구인 진도포구(현 선착장)가 있었기 때문이다.(김중규 저 「군산역사 이야기」에서 발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만 남기지 않고 선유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재현한 행사가 있다. 바로 ‘송나라 사신처럼 그대, 선유도 오셨네’라는 행사이며 2025. 6. 30. 석양녘에 2회 째 열렸다. 이는 문화재청 생생국가유산사업 일환으로 기획에서부터 홍보까지 선유도주민통합위원장인 조춘호 회장과 지역주민대표 임동준씨가 있었다.

- ‘송나라 사신처럼 그대, 선유도 오셨네’ 행사를 준비하게 된 계기



임동준 선유도주민통합위원회 사무국장

선유도에서 태어나서 유년시절을 보낸 임동준 대표, 그가 다시 고향인 선유도로 돌아온 것은 2018년 연육교가 연결되면서이다. 그는 고향에 정착하면서 시골집 원형을 살린 농어촌 민박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대표 임동준은 ‘주민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선유도주민통합위원회’를 발족하여 조춘호 회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장 역할을 맡으며 본 행사를 주관하였다.

선유도에 연육교 개통 이후 한 해 300만 명 가까이 선유도를 방문하면서 크고 작은 혼란이 있었다. 주민들 또한 경험 해 보지 못한 일 앞에서 좌충우돌, 우왕좌왕했다. 임동준 사무국장은 우리의 역사문화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특강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자원의 소중함을 알고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비치코밍을 시작했다.

* 비치코밍은 해변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동

이 행사는 902년 전 송나라 사신단을 선유도에서 영접했던 기록이 있는 「선화봉사고려도경」을 바탕으로 당시 외국인 사신단을 맞이하는 모습을 재현했다. 선유도 망주봉은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또한 선유도는 서해의 낙조 중 으뜸인 아름다운 석양과 경관을 지닌 망주봉을 중심으로 ‘선유팔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선유도만의 특색을 살린 홍보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그 노력으로 국가유산청생생국가 유산사업에 ‘송나라 사신처럼 그대, 선유도 오셨네’가 선정될 수 있었다.



사신맞이 주민들의 깃발행진



-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는 배에서 내려오는 사신단을 향해 선유도 주민 100여명이 깃발을 흔들며 환영했던 모습을 재연하면서 시작되었다. 노란색의 고려시대 의상 행렬은 푸른 바다에 투영되어 황금빛으로 빛났다. 군산정에서 다례연을 베풀었던 기록을 바탕으로 취타대와 주민 20여명으로 이루어진 깃발기수대가 선유도해수욕장까지 행진하였다. 무대에서는 ‘군산정 다례연’ 시연과 다양한 공연 등이 진행됐다. 어느새 고조되는 분위기에 취해 관람객 속에서 큰 박수를 보냈다.

송나라 사신단들이 방문했을 때 선유도에서 만든 송방이란 선박으로 사신단을 태워서 군산정에서 영접을 했던 기록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기 위하여 사료를 바탕으로 열린 토론과 자문 활용을 통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취타대 행진



취타대 행진



송나라 사신맛이 다례연



시낭송

두 번째 행사인 고려와 함께하는 탁본과 고려역사탐방이다. 현지 발굴 기왓장과 청자파편을 이용하여 탁본을 통한 역사 체험과 오룡묘를 기점으로 번성했던 900여 년 전 역사를 국가유산 해설사가 직접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 '선유도 별 헤는 밤' 1박2일 프로그램이다. 망주봉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 검은머리물떼새, 살팽이 탐방과 더불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인 '비치코밍'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네 번째 행사인 '선유도노을음악회'는 선유도해수욕장에서 음악회와 더불어 노을을 볼 수 있는 행사이다.

-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관계 기관과 주민,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행사 과정 중 어려운 점은 무엇보다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늘 시간에 쫓기며 참여하는 등 진행에 부담감이 많았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자신의 주장보다는 협업이 잘 이루어졌고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 뿌듯했다.

생생국가유산

900+2주년
송나라 사신취담 고대,
선유도 모였네

2025년 6월 28일(토) 오후 4시
장소: 선유3구항 주변

취타대·깃발행차 | 사신맛이 다례연 | 시낭송 | 음악회
【부대행사】 다례시음·유생복 체험·가훈 써주기·공예체험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송산 선유도주민통합위원회 (주)선유 010-2195-0073

900+2주년 송나라 사신처럼 고려 선유도 오셨네

고군산군도의 중심에 우뚝 서있는 양주봉에서 바라보는 노른이 아름다운 2028년 국가유산청에서 명승(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덕양섬과 고려역사가 묻어있는 양주봉 주변인 1123년 송나라 사신들이 고려를 방문하여 기록한 『선화봉사고려도발(宣化峯使高麗圖報)』에 나오는 군산도(鎭山島)의 기록을 토대로 외국의 사신단을 맞이하는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당시 군산도의 정치, 문화, 국방, 외교의 현상을 확인하고자 하며 양주봉 주변 고려 유적의 가치를 확인함과 더불어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발전 시키고자 합니다.

01 송나라 사신처럼 고려 선유도 오셨네



개요	사신 맞이 다례연, 갯벌힐링, 음악회
일시	2025년 6월 29일(토) 오후 4시
장소	선유3구항 주변, 선유도 어촌체험마을, 오룡포
대상	군산시민, 관광객, 외국인(1,000명)

02 고려와 함께하는 탁문과 고려역사탐방



개요	탁문체험(양주봉주변 기원정, 청자마련), 양주봉주변 고려역사탐방
일시	2025년 5월 1일(목)~10월 31일(금)
장소	스무돌(선유3구 위치), 양주봉 주변
대상	군산시민, 관광객, 유적원, 초·중학생, 외국인

03 선유도 별해는 밤 (1박2일) 기후변화 프로그램



개요	양주봉주변 고려역사탐방, 서군항로 행사, 갯벌생태 체험, 비치고양이
일시	2025년 9월 30일(토)~21일(일)
장소	선유도 일원
대상	관광객(지원), 외국인(영어사용)·선착순 모집

- 군산시에 바라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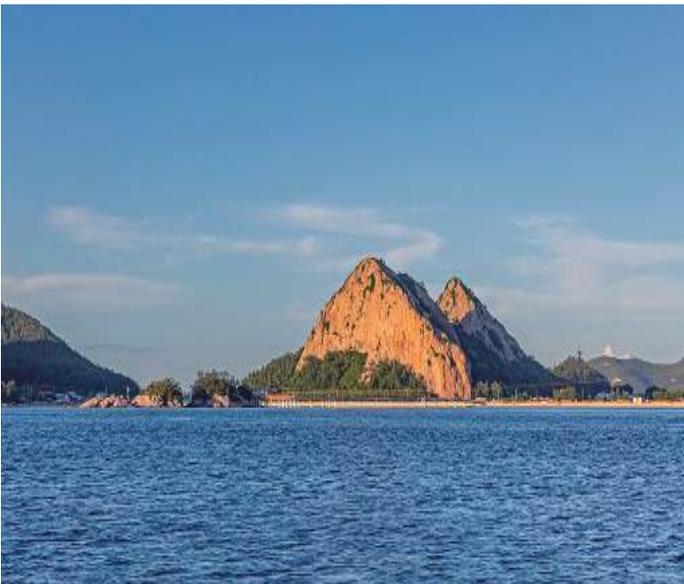
군산의 원래 지명은 군산도이고 군산도는 선유도의 본 지명이다. 이처럼 군산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선유도의 역사를 이해하면 된다. 선유도가 관광지로서 풍경이 아름다운 섬으로만 기억되기 보다는 고려 역사 사료가 그만큼 풍부하게 남아있는 곳은 남한에서 이곳 선유도가 유일하다. 많은 역사적 고증과 망주봉 주변 발굴조사를 통해 땅 밑에 숨겨져 있는 이곳의 역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천의 얼굴을 가진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선유도가 군산의 관광 중심 섬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선유도 곳곳이 방문하는 것이 아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인 것이 아쉽다. 선유도와 주변 섬의 역사적 사실이나 전설, 설화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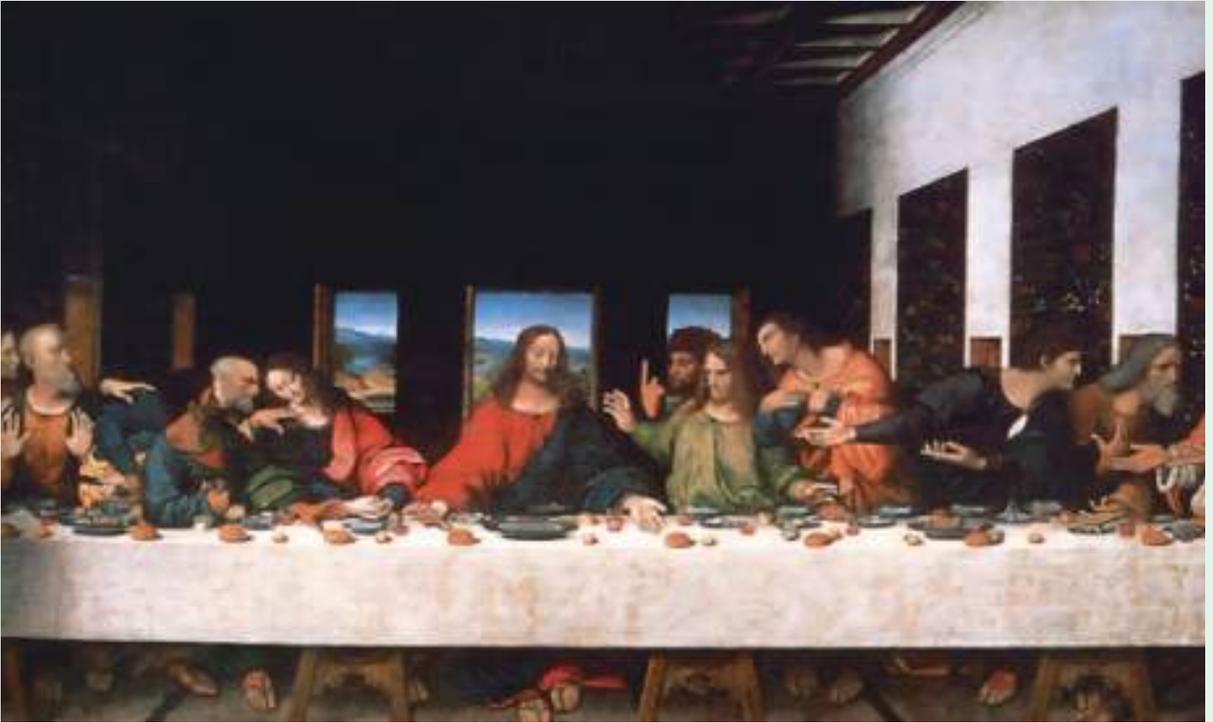
자원을 해치지 않은 관광지 개발이 시급하다. 정성껏 우려 낸 차를 대접하는 '군산정 다례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채영숙 작가는

“900년 전 고려여인이 되어 송나라 왕의 조칙을 가지고 선유도에 오신 사신들께 차를 대접하는 시연을 하며 임금님 앞에 있는 듯 마음가짐이 차분하게 무게를 갖게 되었다. 그 시대의 차나무가 우리 곁에 있었으니 우리만의 차 맛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역사란 후대에 남겨지는 것이며 옛 것을 소중하게 알고 새 것을 일구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멀리 망주봉에 남은 태양이 쏟아지고 있다.



르네상스미술 -2.이탈리아 르네상스(전성기 르네상스)



‘최후의 만찬’ 1495~1497. 460×880cm. 프레스코 벽화.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그라치에 도미니카 수도원

르네상스 전성기는 1490년대 초반에 이르러 로마가 제국 군대에 의해 약탈당한 1527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야코프 부르크하르트가 ‘성기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 용어가 나온 배경은 16세기 초 로마와 피렌체를 비롯한 이탈리아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다수의 걸작들이 쏟아져 나오므로 미술사에서는 특별한 시기로 불린다.

대개 라파엘로가 죽은 1520년을 종료 시점으로 잡지만, 학자에 따라서 신성로마황제 카를 5세의 군대가 로마를 약탈한 1527년, 또는 피렌체 공화국이 멸망한 1532년 등 설이 있다.

‘성기 르네상스’의 예술가로 꼽을만한 인물은 ‘레오나르도 디 세르 피에로 다 빈치’, ‘미켈란젤로 디로도비코 부오나로티 시모니’, ‘라파엘로 산치오 다 우르비노’가 있다. 많고 많은 르네상스 예술가 중 ‘성기 르네상스’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이 세 사람의 예술적 업적, 혁신, 그리고 후대에 끼친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르네상스 예술의 완성에 있어서 후대에 기준을 제시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렇듯 르네상스 미술의 기준점이 되는 대표적 예술가 세 사람

의 작품을 들여다보자.



‘모나리자’ 1503~1506. 목판에 유채. 77×53cm. 루브르미술관 소장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년~1519년)는 이탈리아의 예술가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석학(polymath)이다.

그는 화가이자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해부학자, 지리학자, 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와 직업을 갖은 활동가이다.

이렇듯 오롯이 미술가로써만 있지 않았기에 완성된 미술품은

많지 않아서 타 미술가에 비하여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객관적 사실주의를 지향하여 한층 더 높은 고차원적인 고전적 예술로 향하는 길을 연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였다.

이 시기의 회화는 그 근원을 자연주의에 두며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일단 긍정한 전제 위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데 인체와 배경의 구분을 선명하게 나누지 않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묘사하는 '스푸마토 기법(sfumato)'과 물체 고유의 색상에 변화를 주어 회화적 기법을 자신만의 것으로 완성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가 있다.



◀ '피에타' 1498~1499. 대리암. 195×174cm. 성 베드로 대성전
▶ '다비드' 1501~1504. 카라라 대리석. 199×517cm. 아카데미아 미술관 소장

조각가 '미켈란젤로'(1475년~1564년)는 이탈리아의 조각가, 화가, 건축가, 시인이다.

르네상스시기를 대표하는 거장이며 피렌체, 로마 등 이탈리아 여러 지역에 거주하면서 모든 예술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예술가이다.

특히 그는 작품 속에는 강렬한 감정과 신체의 역동성이 담겨 있다. 오랜 시간 장수하며 르네상스 전성기를 풍류하였고, 그의 건축 양식 또한 뿌리 내렸다.

이러한 그의 영향력은 르네상스 절정기를 넘어 바로크 미술로 가는 길을 열었다.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은 시대의 걸작이며, 조각품 '피에타'와 '다비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캄피도리오 광장'을 만들었고, '성 베드로 대성당'의 완성에도 기여 하는 등 그의 예술적 재능은 다양한 곳

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라파엘로(1483년~1520년)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예술가이다.

라파엘로는 고전적 이상과 조화를 현실에서 완벽히 구현해내며 르네상스 고전주의의 정점에 올랐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는 회화에서 자신만의 '우니오네(unione)기법(스푸마토 기법과 비슷하며 색상의 변형을 준다)'을 바탕으로 표현했다.

건축에도 명성이 있으며 교황청의 대표 화가로서 교회 미술의 이상적인 모델을 정립해가며 후대의 표준이 되었다.

또한 당대 고대 로마 유물 발굴의 총책임자로 일하며, 그로테스크 양식을 재발견해 당대에 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란두카의 성모 마리아' 1504 목판에 유채 55×84cm 팔라초 피티 소장

'인본주의'로의 회귀와 함께 자연을 과학 그 이상으로 관찰하며 예술의 부흥기를 맞은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는 다양한 변화와 이질적 요소의 상호 작용들을 조화와 균형을 갖춘 새로운 조형 원리를 성립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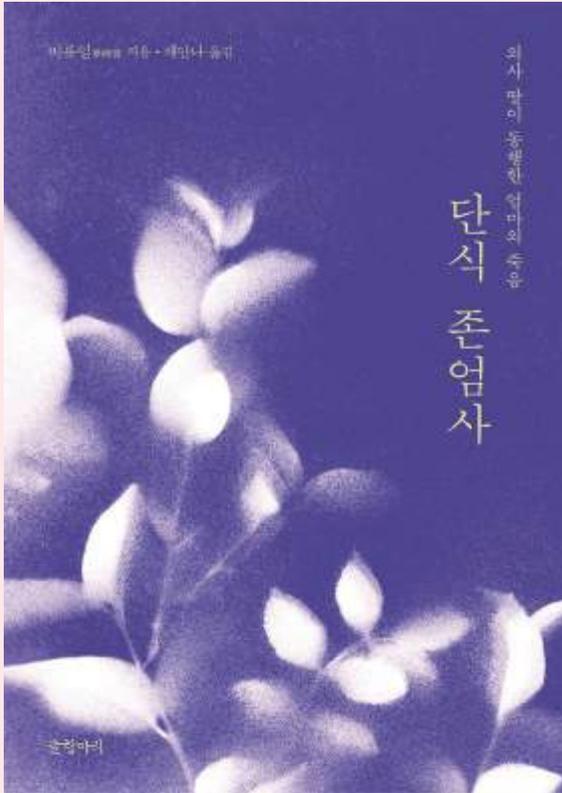
그 어느 시대보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표현들은 지금의 현대 미술 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예술적 풍요의 대 부흥기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배수정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학교 서양화 강의

잘 죽기 위해선 잘 살아야 한다!

비류잉, 채안나 옮김. 『단식 존엄사』 글항아리, 2024.



나의 현재 꿈은 '잘 죽는 것'이다. 진심으로 잘 죽고 싶다. 이 말은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은 전혀 그리고 절대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오래 오래 살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물리적인 수명만 연장한 채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산소호흡기를 비롯한 각종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한 채 병상에 누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갇혀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연명해나가는, '차라리 안 사느니만 못한, 당연히 무의미하고 존엄하지 못한 '장수(長壽) 지옥'(8-9면)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삶은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한 삶은 나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부담만 안기는 일이 될 것이다.

은퇴 이후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고 지내오고 있다. 그 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그 때가 될수록 늦게 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우연히 태어나 필연적

로 죽을 수밖에 없는(249면),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때가 오면 미련이나 악착을 부리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레 존엄사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만의 재활학과 의사인 비류잉의 『단식 존엄사』라는 책이 나를 사로잡았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 책은 소년의 신경 세포가 퇴화하는 질병인 '소뇌 실조증'으로 투병하던 그의 어머니의 생애 서사와 단식 존엄사를 선택한 후 임종을 맞이하기까지의 전후 사정을 곡진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류잉은 한 인터뷰에서 "오늘날의 의료 시스템은 효과가 없는 의료 행위로 사람의 죽음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화 시대, 100살 시대가 되면서, 잘못 죽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라고 전제하면서 현재 대만에서 '단식 존엄사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단식 존엄사는 안락사가 허용되기 전의 과도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죽음의 한 방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는 살아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살고, 때가 되면 억지로 연명하지 않는 것이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 '죽음 리터러시'(Death literacy)를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한겨레』, 2025. 2.28)

나는 이제 내년이면 세수로 일흔의 나이를 맞이한다. 이른바 '예로부터 드물다'는 고희(古稀)의 나이이다. 평균 수명이 60을 채 넘지 못하던 예전 같으면 꿈 같은 나이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1950년대에 태어난 세칭 산업화 세대라 불리는 우리 세대는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운이 좋은 세대라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성장한 부모들 세대와는 달리 망국의 설움 속에 이민족의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지 않았다. 또한 바로 윗세대 선배들 과도 달리 한국전쟁의 혹독한 참화와 가난의 굴레로부터도 자유로웠다. 게다가 지금 세대들처럼 각자도생의 정글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세대이다. 하여 축복받은 세대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들은 부모들에게 효도를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첫 세대인 '갠 세대'로서의 냉소적 불만이나 하소를 토로하는 동년배들이 있다. 배부른 투정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개인적으로 일흔의 나이에 이르도록 이렇다 할만한 큰 곡경이나 난경에 처하는 불운이 없이 지내온 나로서는 지금 생을 마감한다 해도 크게 억울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동양인들의 기취나 금기는 더 심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죽음의사’로 불리며 1996년부터 ‘자신의 죽음 생각하기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일본의 의사 나카무라 진이치의 사례는 평가할만하다. 죽음과 관련된 담론을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 ‘수의 패션 쇼’, ‘모의 장례’, ‘내가 들어갈 관’ 같은 행사로 일본 사회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했던 그는 “70세부터 자신이 이미 ‘유통기한’을 넘겼으니 언제든 여한 없이 인간 세상을 떠날 수도 괜찮을뿐더러 하루하루가 하늘이 주신 특별한 선물”(27-28면)이라는 말을 남기고 있다. 나 또한 하루하루를 축복과도 같은 선물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한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잘 살아야만 잘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한다. 한때 취미와 건강 차원에서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다. 완주하는 과정에서 가장 행복했던 구간은 골인 지점을 3-4킬로 정도 남겨진 지점이었다. 골인 지점을 향해 힘들게 한발 한발 내딛는 파근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골인 이후의 성취감을 비롯한 장면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구간을 지나던 순간이 가장 흥분했기 때문이다. 삶의 여정에서 지금 나이가 바로 그 구간에 해당되지 않나 싶다. 은퇴 이후 그 어떤 의무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 조금씩 것도 서두를 것도 별로 없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하여 앞으로도 오래도록 살고 싶은 생각이다. 하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인생이라고들 한다. 지나온 70여 성상을 헤아려보면 맞는 말일 것 같다. 아니 맞는 말이다. 이 세상과 맺은 시절 인연이 다하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다가오면 죽음을 지연시킬 뿐인 무의미한 연명의료에는 의존하지 않고 생을 마감하려고 한다. 연명 의료 행위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과 비용만 전가할 뿐이기 때문이다.

명재경각(命在頃刻)의 말기 환자들에게 단식 존엄사가 합리적 이면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했으면 하는 장수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죽음을 목전에 둔 말기 환자들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정이나 법에 구속된 다양한 이유로 차마 포기하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자신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를 때문일 것이다. 당연히 존중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몸에 여러 튜브를 꽂은 채 침대에 누워 대소변을 보고,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사지가 뻗뻗해진 상태로 매일 자그마한 침대에서만 생활”(213면)하는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로 죽음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연명치료가 환자에게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임종을 앞두고 소중한 가족들을 비롯한 친지들과 생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복’과 관련하여 잠을 자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들 한다. 이러한 죽음은 망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은 가족들이나 친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더 황망하면서도 허망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변변한 마지막 인사 한마디조차 하지 못한 채 황망하게 떠나버리면 남은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맺힘과 풀림,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에서 이별은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임종을 목전에 둔 망자와의 작별 인사는 다른 이별과는 비교 자체가 언어도단일 정도로 중요한 의식일 것이다. 제대로 된 변변한 작별 의식 없이 망자가 갑자기 떠나버리는 경우 “화해, 사과, 감사, 사랑의 말을 미처 전하지 못한”(220면) 회한이나 자책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지들의 마음 속엔 수습하기 힘든 죄의식이나 응어리가 오래도록 남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모셔 어머니의 노력과 희생, 일생 동안 이룬 것들을 함께 보면서 진심으로 어머니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현”(161면)한, 비류잉이 소개하는 어머니의 인상적인 생전 장례식 장면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후 장례가 지배적인 우리들의 장례 문화에 신선한 자극을 제공한다. 더불어 사전 장례식에서 가족들에게 유언의 형식으로 전한, “아주 만족스럽다! 난 훌훌 떠날 테니 울지 말거라.”(162면)는 어머니의 마지막 작별 인사 또한 적지 않은 울림을 준다.

전직 대통령 6명의 장례 절차를 이끌며 ‘대통령의 염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례지도사이자 천만 영화 ‘파묘’에서 유해진이 연기한 인물의 뼈대를 제공한 당사자이기도 한 유재철 대한민국 장례문화원 대표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해외여행도 계획을 짜는데 왜 가장 중요한 여행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요? 많이 계획할수록 인생의 마지막 여행도 잘 떠날 수 있습니다. 자 전거나 스키를 잘 타려면 자꾸 넘어져봐야 하잖아요. 죽는 것도 연습하듯 많이 생각해봐야 잘 떠납니다. 죽음을 모르면 절반은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한겨레』, 2025.3.13.)라고 말하고 있다. 이 연장선에서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죽음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통 없이, 존엄하게 자연사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궁극적인 행복이다.”(14-15면)라는 저자의 말로 이 글을 매조지고자 한다.



공종구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RCEP 2월부터 발효, 해외진출 위한 승풍파랑(乘風破浪)을 펼쳐라



포털 사이트에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을 검색 해 본 적 있는가? 9만9720km² 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비해 인구는 약 51,846,339명으로 세계 27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뜩이나 적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 인 것이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오늘의 칼럼을 유심히 봐도 좋을 것이다. 파이는 한정적인데 나눠먹을 사람이 많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좁은 국토 안에서 아웅다웅 치열하게 다툰 바에야 멀리 내다보는 사업을 고려해보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무슨 해외진출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그 상황을 타개 할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언급하겠다.

KOTRA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토종 프랜차이즈 업체는 286개다.

글로벌 경제불황과 코로나의 여파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난항을 겪은 바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화의 성공, 끝없는 도전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성공한 프랜차이즈들이 있다. 특히 동남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외식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에 한국 음식 진출을 수월할 수 있다.

현재 동남아에 진출하고 있는 외식 업체들은 모두 현지화 전략을 쓰면서 현지 고객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말인즉슨 당신이 외식업을 하며 동남아에 진출 하려고 하면 그 나라를 면밀히 분석해 현지화 전략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음식 연구하는데 바빠 그럴 겨를이 없는 사람이 태반일터. 이럴 경우 해외진출을 도와주는 업체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해외 진출을 하려면 국제 변호사도, 계약 전문가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 대응 매뉴얼이 약하다 보니 사기를 당하거나 엉뚱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와 손을 잡고 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추천한다.

앞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미리 언급한 바 있다. 그 좋은 소식이란 다자간자유무역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2월부터 발효 됐다는 것이다.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참여한 다. RCEP에 참여한 나라들 간 품목별 관세철폐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통일된 원산지 규범 마련과 증명과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저작권 특허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범침해 시 구제 수단도 마련된다.

송서(宋書)와 남사(南史)의 '종각전(宗裔傳)'에 승풍파랑(乘風破浪)리하응 고사성어가 나온다. 먼 곳까지 불어 가는 바람을 타고 끝없는 바다의 파도를 헤치고 배를 달린다는 뜻으로, 원대한 뜻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 과정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 끝에 기다리는 달콤한 보상을 생각하며 겁 없이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원한다.



김철호
식품의약학 이학박사, 대한민국명인
수산신지식인, 내고향씨푸드 운영

나의 마당에도 장미꽃이



어법을 강조할 때라면 ‘너무 아름답다’라는 말은 좋은 문장이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부정을 포함하고 있는 ‘너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지요. 제게는 ‘너무 이쁜 장미’가 그래요. 아무 곳이나, 아무렇게 피지 않을 것 같은 장미는 이미 귀하고 이쁜 걸 넘어 무언가 다른 단어를 원할지도 모르죠.

장미를 마당에 들여놓을 생각을 하지 못한 건 그래서였을 거예요. 너~무 예쁜 건 어쩌면 내 마당(사실은 엄마 마당)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에 가득했던 진땀물을 포함한 해충들을 견뎌내야 할 근심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도 이유였어요. 하지만 올해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엄마가 예전에 대문을 풍성하게 장식해 줬던 덩굴장미 잘라낸 것을 아쉬워했기 때문이에요.

장미를 들여놓기로 하고 6월 초 대야장에 갔답니다.

나무 파는 상인에게다가가 포트에 있는 장미 가격을 묻고 두어 그루 달라고 했지요. 상인은 가위를 가져오더니 한 가지씩 잘라주겠다고 했습니다. “포트 채 파는 게 아니고 가지를 잘라주겠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가지를 못 자르게 하고 여러 번 물었습니다. “네, 가지를 잘라 땅에 꽂으면 됩니다. 그러면 잘 자라요.” 상인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직접 할 자신은 없어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보지 못한 장미 여러 종을 포트에 구입했습니다. 장미의 가지를 잘라심는 것은 그다음 해보려고요.

전주 수목원에도 장미원이 있지요. 수없이 교배 육종된 장미가 서로의 자태를 뽐냅니다. 개량된 장미는 종족 번식을 위한 수술을 갖는 대신 더 많은 잎을 선택했어요. 그런 장미 잎을 떼어 세어본 적이 있는데 2백 장이 넘었습니다. 장미는 붉은색과 붉은색의 교배를 통해 더 붉은 장미를 얻어요. 꽃잎이 많은 품종끼리 교배해 꽃잎이 더 많은 장미가 나오지요. 이렇게 탄생한 장미의 색과 탐스러움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장미든 다 교배 육종을 통해 만들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푸른 장미는 없다고 해요. 파란 색소 유전자를 가진 장미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파란 장미 꽃다발을 받아 보았다고요? 그건 흰 장미를 파란 색소로 물들인 것이랍니다. 일본에서 파란 장미에 성공했다는 사례가 있는데 연보라색에 가까워 파란 장미라고 하기엔 아쉬웠어요. 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파란 장미도 꼭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대로 파란 장미는 없어도 좋겠다 해요. 불가능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걸 다 갖춘 장미라면 어쩐지 좀 이 세계의 것이 아닌 것 같잖아요.



신재순 시인 /
시인 / 한국아동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문 밖에서 만나는 나무와 풀, 곤충을 사진에 담고 이야기한다.

군산근대미술관, 민병헌 초대전 개최

아날로그 흑백 사진 속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피어난
시적인 회색의 결을 담은 작품 20점 선보여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 역시 빛과 원근을 일부러 배제하고 흐릿한 화면 속에서 피사체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동양화 혹은 추상화를 연상케 하는 고유의 회색 세계를 고스란히 선보인다.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은 작가의 대표 시리즈인 [Weed], [Deep], [Fog], [River], [Snowland], [Waterfall], [Sky], [Nude], [Bird] 등을 통해 자연과 일상 속 풍경들이 환상적이면서도 본질적인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년 넘게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우직하게 고수해온 민병헌의 사진은 단순한 기술적 재현을 넘어, 감성적 경험의 확장이다.

누구나 손에 디지털 카메라를 든 이미지 홍수의 시대에서도 그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다층적 세계를 통해, 시청각이 아닌 '내면의 시'로 관람객을 초대한다.

군산근대미술관(구 18은행)이 오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민병헌 작가 초대전 '민병헌 그레이'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촬영부터 인화까지 모든 과정을 손수 진행한 아날로그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 작품 20여 점의 출품된다.

'아날로그 사진의 대가'로 불리는 그는 흑과 백 사이 무수한 회색조를 정교하게 조율하며, 사진 속에 서정적 감성을 녹여내어 왔다.

이런 직관적인 감성과 시선을 회색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이른바 '민병헌 그레이(grey)'라는 독보적인 스타일로 완성됐다.

군산근대미술관
군산시 해망로 230

올여름 무더위, 군산야외수영장에서 시원하게 탈출하자!

7월 4일 군산야외수영장, 7월 25일 어린이공연장 물놀이장 대개장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시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군산시가 군산야외수영장과 어린이공연장 내 물놀이장 개장을 알렸다.

먼저 시민들의 여름철 대표 나들이 명소로 자리매김한 군산시 소룡동 소재 야외수영장은 7월 4일(금)부터 8월 24일(일)까지 문을 연다. 단, 매주 월요일은 휴장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수질 및 환경정비를 위한 브레이크 타임으로 수영을 할 수 없다.

야외수영장은 성인풀·어린이풀·유아풀

등 다양한 수영 시설과 바닥분수, 매점, 샤워장,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매년 가족 방문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다양한 연령층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와 안전 점검을 마무리하였으며, 수상안전요원 등 전문 인력도 배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인 어린이공연장 내 물놀이장도 7월 25일(금)부터 8월 24일(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될 예

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여름, 가까운 곳에서 시원하고 즐거운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무엇보다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쾌적한 운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이용 시간 및 입장료 등은 군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군산체육센터 개관식 개최

총사업비 280억 원 투입, 서부권 체육인프라 균형 발전과 체육복지 실현의 거점 마련
일평균 1,200여 명 이용, 군산시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체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군산시(군산시장 강임준)가 서군산체육센터(이하 '센터') 개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개관식은 군산시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 증진과 지역 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새 거점의 출발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문승우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도·시의원, 체육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개관식은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군산시 산북동에 자리한 복합체

육시설로 총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2019년 착공하여 2024년 11월 준공되었다.

건립 규모는 부지 19,918㎡, 연 면적 8,452㎡(지하 1층 ~ 지상 3층)에 달한다.

내부에는 ▲실내수영장(25m×8레인 성인풀, 어린이풀) ▲다목적체육관(농구, 배구 등) ▲체력단련실 ▲운동실(단체운동 프로그램 4실) ▲탁구장(7대) ▲축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 12월 수영장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 시범운동을 거친 뒤 2025년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센터는 현재 일 평균 1,200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수영강습, 아쿠아로빅 등 수영 프로그램과 함께 필라테스, 요가, 발레스트레칭, 스텝박스 등 단체운동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끌어내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념사에서 "서군산체육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소통,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될 공간"이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K-관광섬의 새로운 이름을 공개합니다!

‘고군산 섬잇길(Seomitgil)’ 이름 및 디자인 공개



군산시가 ‘고군산 K-관광섬 육성사업’의 하나로 개발한 해상걷기여행(해상트레킹) 코스의 명칭을 ‘고군산 섬잇길’로 정하고 고군산 K-관광섬의 정체성 확립과 K-관광섬 홍보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고군산 섬잇길’은 K-관광섬을 이루는 5개의 섬(말도, 보농도, 명도, 광대도, 방축도)과 4교의 해상 인도교를 잇는 1.4km에 달하는 해상걷기여행(트레킹) 코스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담은 이름이다. 이번 명칭은 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로고 디자인 역시 섬과 섬을 잇는 다리 이미지를 활용해 물리적 연결을 상징했다.

동시에 자연과 사람이 하나로 이어지는 감성을 자연스럽게 둥근 형태의 서체로 나타냈으며, 걷기여행(트레킹)을 통해 섬과 섬, 자연과 나를 잇는 특별한 하루를 경험하는 K-관광섬의 매력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해외 방문객을 겨냥해 우리나라의 섬을 알리는 해양 콘텐츠인 만큼 ‘섬잇길’의 “잇”을 영문으로 it(그곳에 있다) 또는 eat(맛보다, 섬의 미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런 중의적 의미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흥미와 기대를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시각 요소로 확장해 홍보물과 관광 안내시설, 안내판, 지도, 각종 콘텐트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군산 섬잇길이 K-관광섬의 아름다운 자연과 스토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널리 각인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산만의 고유한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정윤희 개인전 개최

사계절의 정서를 담은 <마음 풍경 Landscapes of the Mind>...
자연과 일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 반영



마음 풍경 Landscapes of the Mind

정윤희 개인전

Jung Yoon Hee
Solo Exhibition

2025.06.24 - 2025.08.24

군산 장미갤러리 2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232

정윤희 작가는 봄의 생명력, 여름의 청량함, 가을의 황금빛 서정, 겨울의 고요한 침묵 등 사계절의 정취를 따뜻한 시선과 섬세한 붓터치로 표현해냈다.

인상주의적 화풍과 자유로운 감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의 작품은 관람객에게 조용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작품에서는 시골 마을의 정취, 자연의 섬세한 움직임, 그리고 사물의 조용한 존재감을 통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그대로 표현됐다.

눈에 익은 풍경이지만 그 속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해 내는 작가의 시선은, 그림을 보는 이에게도 낯익은 그리움과 평온함을 불러일으킨다.

정윤희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자연이 우리 곁에서 건네는 다정한 위로를 그림으로 담고 싶었다”며, “제 그림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과 기억이 만나기를 바란다”는 초대어의 말을 전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6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정윤희 개인전 <마음 풍경 Landscapes of the Mind >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과 일상 속 사물을 바라보며 느낀 작가의 감동과 사유를 화폭에 담은 서양화 30여 점이 선보인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해망로 240
www.museum.gunsan.go.kr/

‘공부의 명수’ 질문왕 30명에 프로야구 관람 기회 제공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학생들에게 특별한 학습 동기 부여



군산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학생들에게 색다른 학습 동기를 제공한다.

시는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의 학습질문방을 적극 활용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야구 관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8월 1일까지 운영되며, ‘공부의 명수’ 내 학습질문방을 가장 활발히 이용한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학생 중 30명을 선정해 프로야구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질문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과목별로는 수학은 매일, 영어와 프리토킹은 월·수·금요일에 이용할 수 있다.

당첨자는 8월 8일 ‘공부의 명수’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선정된 학생들은 8월 19일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를 관람하게 된다.

‘공부의 명수’는 학생들이 학습 중 마주하는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시

간 문제 풀이 서비스와 1:1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공공학습 플랫폼이다.

특히 올해는 현직 교사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학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기 있는 영어 회화 프로그램도 주 3회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이벤트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여름방학 동안에도 꾸준히 학습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쉽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부의 명수’가 군산 학생들의 든든한 학습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유도해수욕장 7월 9일 개장...40일간 운영

어린이 워터슬라이드,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체험 마련



유리알처럼 고운 백사장이 약 10리에 걸쳐 펼쳐진 '명사십리' 선유도해수욕장이 오는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40일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신선이 놀던 섬' 선유도는 고군산군도의 섬들이 방파제처럼 둘러싸여 있어 파도가 잔잔하고 어자원이 풍부하기로 정평이 난 곳이다. 따라서 일찍부터 해수욕과 낚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관광지로 알려져 왔다.

올해도 시는 비치파라솔 100조, 구명조끼 700벌을 마련했으며, 실내 샤워장 등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인 미끄럼틀과 수영장인 워터슬라이드도 설치하기로 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광장 그늘막 3개소, 음악분수도 마련된다.

최근 새로운 대안 치료로 인기인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만성질환, 신체적 피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바다, 해풍, 모래, 해조류 등 해양자원으로 치유하는 활동이다.

시는 천혜의 지역 해양환경을 활용해 요가·모래찜질·해변 명상 등 자연 속 치유 활동을 제공해 단순 관광을 넘어선 '쉼과 회복' 중심의 체류형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

역 특화형 해양복지 서비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 동안에는 군산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장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 뿐 아니라 수상 안전요원도 배치해 피서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은 물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선유도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름 명소이자, 일상 속 건강을 회복하는 해양치유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항 원포트 체계 구축에 따른 군산시 관할권 확립 및 실질적 운영주도 강조

- 새만금특별위원회, 신항만의 주권자로서 명확한 권리주장 외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이하 새만금특위)는 19일 '새만금항 원포트 체계 구축에 따른 군산시 관할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새만금 특위는 지난달 2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군산항과 내년 개장을 앞둔 새만금 신항을 '새만금항'이라는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원포트)으로 지정한 것은 전북 해양물류 체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이번 원포트 지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행정적 통합을 넘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각기 특화된 기능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적 재편으로 군산항은 중소형 선박·기존 산업 물동량을 새만금신항은 대형 선박·미래 신산업 물동량을 담당하여 전북 해양물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새만금항'은 수역과 매립지는 군산시 관할구역 내에 있고, 신시도와 두리도 사이 해역을 매립해 건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는 주권자로서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에 있어 선제적 대응은 당연한 책무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군산시는 126년간 축적한 해양행정과 항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법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권리주장을 통해 새만금신항 관할권(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포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간 기능 분담 및 해양기반 인프라 구축 등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고, 산업단지과 물류 인프라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형 선박과 중소형 선박의 물동량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투자 유치를 병행해야

하며, 새만금신항은 국가 기간물류망과 직결되는 해양기반 인프라 중심 항만인 만큼, 실질적인 운영과 배후단지 조성, 해운업체 유치 등 주요 역할은 풍부한 경험과 행정 역량을 갖춘 군산시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새만금신항이 전북권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려면 명칭 통합을 넘어 실질적 기능 중심 역할 분담과 권한 소재가 명확한 규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군산시가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 새만금항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백남준 판화전 : 그가 사유한 미래>

8월 30일까지 예술의전당 2·3 전시실에서 열려…다양한 부대행사도 눈길

The Future Nam June Paik Envisioned
2025. 07.18 FRI - 08.30 SAT

백남준 판화전
: 그가 사유한 미래

관람시간
/ 10:00 - 17:00 (월 휴관)

관람료
/ 무료

도슨트
/ 1일 4회
(11:00, 14:00, 15:00, 16:00)

군산예술의전당 2,3전시실

주최 | 군산예술의전당 주관 | 군산예술의전당 Artsquare 문의 | 063)454-5535

군산예술의전당이 무더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특별 기획전시로 비디오아트와 혁신가였던 백남준 작가의 판화를 18일부터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백남준 판화전: 그가 사유한 미래>로 비디오아트 창시자였던 백남

준의 예술 세계를 판화를 통해 만나보는 방식으로 준비됐다.

관객들은 판화라는 기록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철학과 시대정신을 새기고 본인의 작품세계를 견고히 했던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초중고 교과서

에서 자주 만났던 백남준의 대표작들을 친필 서명이 담긴 원작 판화와 드로잉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디오아트를 개척해나갔던 시기의 판화부터 생애 말년에 남긴 마지막 판화까지 70여 점을 한데 모아 그의 예술적 여정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백남준처럼>이라는 주제로 도장 판화체험, 나만의 공식 만들기(백남준식 소통법), 나만의 TV 로봇 블록 만들기, TV 자석 체험 등 전시 관람이 끝난 뒤에도 아티스트 백남준을 또 한 번 기억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심종완 예술의전당 관리과장은 “무더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시대를 앞서갔던 백남준의 흔적을 만나고 체험해 보며 수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시는 군산예술의전당 2·3 전시실에서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44일간 진행된다. 여기에 <백남준 판화전 : 그가 사유한 미래>를 더욱 깊이 있고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작품 해설이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11시·14시·15시·16시 총 4회 마련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누리집 (<https://www.gunsan.go.kr/arts>)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산예술의전당
군산시 백도로 203
www.arts.gunsan.go.kr/

군산시-군산시의회 청렴도 제고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4년 청렴도 5등급 반성...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도 동반상승 다짐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9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렴한 지방행정 실현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모두 5등급(최하위)을 받은 것에 대한 지역 사회의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면적인 청렴 개선과제를 실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양 기관의 주요 간부진이 참석했으며, 부정청

탁·갑질 등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약서를 교환하며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청렴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부정청탁, 권한남용, 갑질 등 부당행위 예방 ▲계약,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등 청렴 취약분야 개선 ▲청렴 위반행위에 대한 안전한 신고체계 운영 및 신고자 보호 ▲청렴도 평가결과 공동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또한, 양 기관은 반기별 1회 이상 청렴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약사항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임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군산시의 자성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이며,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와 의회가 진정성 있게 협력하여 청렴한 군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우민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은 단순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군산시 의회는 앞으로 군산시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군산시의회
군산시 시청로 17
www.council.gunsan.go.kr

바람, 셰익스피어, 그리고 소녀의 노래

군산시립합창단 제120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시작의 서곡>

군산시립합창단 제120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시작의 서곡>
**바람
셰익스피어..
소녀를 노래하다**

객원지휘자 최원익 / 군산시립합창단

2025. 9. 6(토) 17:00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티켓 금액 | 전석 5,000원 / 할인 2,500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
인터뷰에매 | 티켓링크 [7월 18일(금) 10시 부터 가능] - 공연당일 현장수령
현장에매 | 공연당일 공연시작 1시간 전 (18시30분)부터 대공연장 1층 판매 [카드결제만가능]
공연문의 | 063)454-5558, 5528 주최 ● 군산시 주관 군산시립합창단

군산시립합창단이 오는 9월 6일(토)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20회 정기연주회 <새로운 시작의 서곡>을 화려하게 무대에 올린다.

상임지휘자가 부재한 가운데 열리는 이

번 연주회는 현 포항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예술적 열정과 뛰어난 기량을 보유한 최원익 객원지휘자가 함께한다.

최원익 객원지휘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합창 지휘 예술전문사와 프랑크푸

르트 암 마인 공연예술대학교에서 지휘과를 석사 졸업한 촉망받는 예술가이다.

최 지휘자는 이번 공연에서 합창단의 중심점 역할을 하며 군산 예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연의 주제는 '바람, 셰익스피어, 소녀를 노래하다'로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정남규 작곡의 '바람의 말'은 상실 속에서 기억과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며 깊은 성찰을 유도하고, 천성미 편곡의 '3 Shakespeare Songs'는 셰익스피어의 시대를 초월한 감성을 합창으로 재해석한다.

여기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가 'Deep River'와 'Every Time I Feel the Spirit'가 고난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는 희망과 인내를 노래한다.

이외에도 박나리 작곡의 '오래된 가을'과 '바다가 그리워'는 성찰과 위로, 이범준 작곡의 '기쁨에게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조혜영 편곡의 '소녀'와 박문희 편곡의 '꽃길만 걷게 해 줄게'는 순수함과 밝은 미래를 노래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군산시립합창단은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새로운 시작의 서곡'이라는 부제와 조화를 이루어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예술의전당
군산시 백도로 203
www.arts.gunsan.go.kr/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본격 지급

콜센터 운영·전담 TF팀 가동, 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군산시가 2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1차 지급 기준은 일반 시민 18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이다.

군산시가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며, 1인당 3만 원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신청은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경로는 ▲군산사랑상품권 앱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다

양하게 마련됐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읍면동 현장 접수를 통한 선불카드 지급도 병행한다.

특히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해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민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군산시 전담 콜센터(063-454-4370)도 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별도 콜센터(063-280-4950~4955)를 설치해 광역 차원에서 지원 사격에 나선다.

시는 신청 절차와 사용자 등 다양한 문의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응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전담 TF팀도 가동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추진반(지급결정팀, 운영팀, 인력관리팀) ▲행정지원반 ▲현장대응반 등 3개 반이 8개 부서와 27개 읍면동 협업체계를 갖췄으며, 총 11명의 TF팀을 구성해 지급부터 사용까지 빈틈없는 지급체계도 마련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소비쿠폰이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청부터 수령, 사용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챙기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내된 절차에 따라 차분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 최초 이명치료기 'ALTMS' 도입



전경호 JKH ENT Clinic
이비인후과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252 2-3층 T: 063-471-5575

군산과 새만금 지역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매거진 군산·새만금을 위하여 보내주신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매거진 군산·새만금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독자 관리를 위하여 CMS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이 신청서는 군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 1. 권유하신 분께 직접 전달 2. 팩스로 송부 (063) 442-3883
3. 사진 찍어서 이메일 newgunsanews@naver.com

이런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수납기관명: 문화관광 사람과 길(매거진 군산) ·대표자: 채명룡 ·사업자등록번호: 241-43-01344
·사업장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절골3길 16-2(신흥동) ·수납 요금종류: 구독료 납부

- 매거진 군산·새만금 구독 (7,000원/월)
□ 새군산신문 + 매거진군산·새만금 구독 (10,000원/월)

■ 구독받으실 주소

[Empty box for subscription address]

·출금계좌 예금주명_ ·금융기관명_
·출금 계좌번호_
·예금주 생년월일_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_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경우
·신청인명_ ·예금주와의 관계_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_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인 또는 서명)



족발야시장 군산미장점

맛있는 재료로 만든 졕발의 명가

대표 전 재 용

군산시 미장1길 38 102, 103호

TEL: 063-453-4969

SeAH Beste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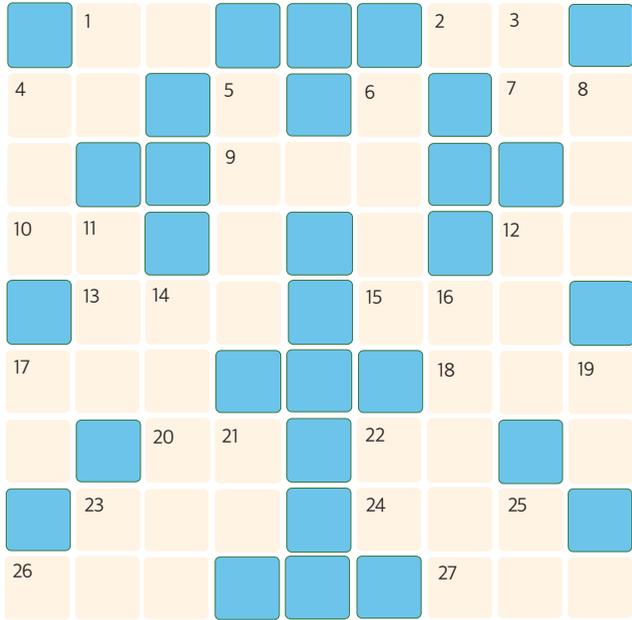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세아베스틸
이제, 세계 최고의 특수강 메이커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Born to be Special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67



경	회	루	비	일	비	재
극	전	무	녀	도	미	
예	술	의	전	당	양	주
비	자	체	민	단		
행	주	주	입	식	비	대
		어	의	이	산	동
	도	용	헌	법	재	판
수	신	화	사	보		이
예	상	문	제	수	형	생

<166호 해답>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 새만금에 보내주세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에이브호텔 썬데이 브런치 2인)을 드립니다.
 Fax. (063)442-3883 E-mail. leejony_@daum.net
경품 추첨을 위해 팩스, 메일 보내주실 때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출제: 오성렬(편집위원) 협찬: 에이브호텔 군산

▶ 가로 열쇠

- 01 삼복(三伏)가운데 첫 번째 복날.
- 02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 가운데 나이가 적은 사람 ↔형.
- 04 얇게 싹싹 언 얼음. 근소한 차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07 양반과 천민 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들.
09. 한국의 전통적인 약재로 달인 차.
- 10 칭송 거리로 널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림.
- 12 관청 건물.
- 13 혹독한 겨울 추위를 사람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15 오천 년을 달리 일컫는 말.
- 17 차를 세워 둘 장소가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
- 18 병기(兵器)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공장.
- 20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음. 또는 그런 말.
- 22 공무(公務)에 관하여 관원끼리 사사로운 연락함. 부부가 아닌 남녀가 몰래 서로 정을 통함.
- 23 자식의 유학을 위해 처, 자식을 해외에 보낸 뒤 자신은 국내에 남아 돈을 벌며 해외에 보내며 외롭게 지내는 가장을 흔히 이 세에 비유한다. 000아빠.
- 24 남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생색내며 스스로 자랑함.
- 26 작은 것을 크게 보이도록 알의 배를 볼록하게 만든 안경.
- 27 정치·경제·군사적으로 힘이 약한 작은 나라.

▼ 세로 열쇠

- 02 예를 갖추어 불러맞아들임.00교수.
- 03 화장을 하지 않은 맨얼굴을 속도게 이르는 말.
- 04 온갖 물품을 전시하고 생산물의 개량발전 및 산업 진흥을 꾀하기 위하여는 전람회.
- 05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거하여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
- 06 두편이 서로 같음. 피장파장.
- 08 중병이나 사고사가 아닌, 늙고 쇠약하여 저절로 맞는 죽음.
- 11 내연기관의 동력에 의하여 바퀴를 굴러 움직이는 차.
- 12 신체와 정신의 발달이 가장 왕성한 스무살 전후의 시기.
- 14 장난이 심한 아이. 또는 그런 사람.
- 16 온갖 병에 다 듣는 약.
- 17 술청에서 술을 파는 여자.
- 19 정당을 새로 만들.
- 21 토목 공사에 쓰는 중량이 큰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22 이것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 23 바둑을 둔 내용을 순서대로 적은 기록.
- 25 매우 작거나 적음. 하찮음. 00한 일로 다투다.

"매거진군산 새만금과 함께할 필진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063-445-4700
 이메일: leejony_@daum.net